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2006 Edition

Summary in Korean

교육 총관 : OECD 지표 2006 년판

국어 개요

교육 총관은 교육자, 정책당국, 학생, 학부모에게 OECD 국가 및 다수 OECD 외 국가의 교육 성과와 정책에 관한 양적, 질적 데이터를 전반에 걸쳐 풍부히 제공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성과, 자원, 참여율, 학교교육 편성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과 더불어 교사의 기본 교육 능력에 부여된 중요성, 이상적 학급 규모, 학업 기간 등의 사안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유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제도 품질 점검

2003년 OECD 국제학생평가(PISA)를 통해 OECD 국가의 15세 학생 수학 능력을 측정했다. 핀란드, 한국, 네덜란드는 여타 OECD 국가의 평균 비해 월등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절반 이상이 프로피션시에서 평균 이상 수준을 보인 경우였다. 호주,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등의 11개국 성적은 OECD 평균 이상이고, 오스트리아, 독일, 아일랜드, 슬로박은 OECD 평균에 맞먹으며, 나머지 11개국은 평균 미달 수준이다.

이전 세대 인구는 유사한 비교 사항을 갖고 있지 않으나 교육 수준별로 수료 여부를 감안하여 교육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OECD 국가 성인의 평균 42%가 고교만을 졸업했고 30% 정도는 초졸 후 중졸에 그쳤으며, 25%는 고등교육을 마친 경우였다. 그렇지만 계층간 교육수준 분포도는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유럽, 미국은 동아시아국에 점점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예로 2세대 이전의 한국 국민 생활 수준은 오늘의 아프가니스탄 수준이었고 교육 성과도 최저 수준에 속했는데 현재 한국의 25-34세 인구 중 고졸자 비율은 97%인 바 OECD 국가에서 최고 수준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 사례가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실로 중국, 말레이시아는 1995-2004년간 만에 대학 입학생 수가 2배 이상 늘었고 태국, 인도는 각각 83%, 51%의 증가율을 이루었다.

아시아는 질적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 대경제국은 PISA 평가상의 15세 학생 성적이 겨우 OECD 평균 안팎이나 그 이내 수준이었던 반면 PISA 2003에 참가했던 6개 동아시아 교육제도는 최고 성적을 기록한 10개국에 들었으며 또한 이 때에 수많은 학생이 뒤 처지게 하는 일 없이 성공을 이룬 경우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EU는 15세 학생의 평균 20%가, 미국은 평균 1/4 이상이 1수준(PISA 상의 최저 수준)이나 그 이하 성적을 기록했다. OECD 국 전체를 보면 빈곤 가정 학생이 사회경제적 이익 여건의 학생보다 1수준이나 그 이하 성적을 받을 소지가 3.5배 더 크다.

학급 규모: 소규모가 반드시 더 낫지 않을 수도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생/교사 비율과 성과 간의 상관관계가 간단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 한국, 멕시코, 브라질, 칠레, 이스라엘은 1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반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러시아 연방은 20명 이하인데도 룩셈부르크는 학생의 2.7%만이 PISA 수학의 최고 성적 기록자에 속하는 반면 일본은 8.2%나 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급 수, 교사 책임 하의 학생 수, 수업 과목, 수업과 여타 직무 간의 교사 시간 분배, 학급내 학생 편성, 팀별 수업 관행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성별 균형: 교육 성과 면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을 따라잡고 있다

교육 자격 취득률에서 성별 격차는 여성에 유리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55-64세 인구의 평균 정식 학업 기간은 겨우 3개국에서만 여성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25-34세의 평균 학업 수료 했수는 30개 OECD 국 중 20개국에서 여성 편에 유리하게 더 긴 추세며, 나머지 10개국 중 단지 스위스, 터키, 2개국만이 성별 격차가 0.5년 이상 남성 편에 유리하게 더 긴 경우이다.

성별로 총 고졸률이 비교가능한 국가를 보면 22개 OECD 중 19개국과 3개 OECD 외 국가 경우에 여성 고졸률이 남성보다 우세한 수준이다. 이 졸업률의 성별 격차는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브라질에서 여학생 편에 10%p 더 높게 드러나는 반면 터키는 8%p, 한국, 스위스는 1%p 이내 수준으로 남학생 편에 더 높게 드러나는 실정이다.

OECD 국가마다 판이한 교사 보수 및 직무 부담

15년 경력의 초등·중교 교사 보수가 1인당 GDP에 비해 낮은 수준인 국가는 헝가리 (0.91), 아이슬란드 (0.69), 노르웨이 (0.87), 폴란드 (0.83), 이스라엘 (0.73)인 반면 높은 수준인 국가는 한국 (초등 2.37, 중교 2.36), 멕시코 (중교 2.09), 터키 (초등 2.44) 등이다. 일반 고교에서 최저 비율을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 (0.87), 폴란드 (0.83), 아이슬란드 (0.94), 이스라엘 (0.73) 등이다.

최소 15년 경력의 중교 교사 보수는 폴란드의 약 1만 달러에서 독일, 한국, 스위스의 4만 8천 달러 이상의 금액 사이에 이르며 룩셈부르크 경우 8만 달러 이상이다.

1996-2004년 사이 교사 보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질 증가율을 보였으며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가 최대 증가율을 이루었다. 동 시기에 스페인의 초중등 교사 보수는 실질 감소율을 보였으나 현재 OECD 평균 이상 수준에 유지되는 상황이다.

공립학교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평균 704인데 멕시코, 미국의 1000 이상 수준에서 일본의 534 사이에 이른다. 1년 동안의 수업 시간 분포에서도 국간 격차는 심하게 드러나는데 예로 한 학년 기간이 36주인 아이슬란드 교사는 42주인 덴마크 교사보다 연간 근무 시간이 더 긴 편이다. 그렇지만 수업 시간은 교사 직무 부담에 관한 지표의 한 가지일 뿐 교사가 수업 준비나 채점, 학업 외 활동에 크게 할애하는 시간 또한 교사 직무 부담 요소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다.

OECD 국가 학생이 7-14세에 받는 교육 시간은 평균 6847시간으로, 이 중 1570시간은 7-8세에, 2494시간은 9-11세에, 2785시간은 12-13세에 받는다. OECD 국가 학생의 의무교육 시간에서 읽기, 쓰기, 수학,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세 학생 경우 거의 50%가 되고 12-14세 학생은 41%가 된다. 읽기, 쓰기가 9-11세 학생의 의무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 호주, 칠레, 이스라엘의 13% 이내 수준에서 프랑스, 멕시코, 네덜란드의 30% 사이이다. 현대 외국어 학습 시간에서도 국간 격차는 심하게 지는데 호주, 잉글랜드, 일본, 멕시코의 1% 이내 수준에서 룩셈부르크의 21% 사이이다.

학교교육 비용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 5.9%

교육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 5.9%로, 터키의 3.7%에서 아이슬란드의 8% 사이에 이른다. 전형적인 OECD 국의 1학생당 연간 교육비는 초등, 중등, 고등에서 각각 5450, 6962, 11254 달러다. 이론상의 초중등학업 기간에 OECD 국이 1학생당 지출하게 되는 비용은 평균 77,204 달러로, 총 지출액이 멕시코, 폴란드, 슬로박, 터키, 브라질, 칠레, 러시아 연방의 4만 달러 이내 수준에서 오스트리아,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의 10만 달러 사이에 이른다. 한편 고등교육에서는 다양각색의 학업 과정이 제공되기 때문에 비교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예로, 고등교육의 1학생당 연간 지출은 일본이 독일과 맞먹는 수준이다(일본 11,556 달러, 독일 11,594 달러). 하지만 평균 고등학업 기간이 독일은 5.4년인데 반해 일본은 4.1년인 점을 감안하면 고등교육 1학생당 누적 지출 비는 일본이 47,031 달러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62,187 달러를 육박한다.

소규모 단위교육지출이 반드시 성적 미달의 원인이 아님을 염두에 두자. 예로 한국, 네덜란드는 초중등 교육 지출이 OECD 평균 미달 수준인데도 PISA 2003 평가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한 국가에 속했다.

1995-2003년 모든 국가가 초중등생과 고졸 후 고등교육 이외 등록 학생에 대한 일인당 지출 차원에서 증가 추이를 보였다.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26개 OECD 국가 및 OECD 외 국가 중 16개국 경우에 이 증가율은 20% 이상이었으며 호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 터키, 칠레는 30%

이상 수준이었다. 동 시기에 초중등생 및 고졸 후 고등교육 외 등록생에 대한 일인당 지출에서 10% 미만의 증가율을 기록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이스라엘 등이다. 등록자 수 감소가 이러한 변화를 유도한 주요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등교육 추이는 판이하다. 데이터 입수가 가능한 27개 OECD 국 및 OECD 외 국가 중 (호주, 체코,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박, 브라질, 이스라엘 등) 7개국에서 1995-2003년 사이 고등교육 1학생당 지출은 감소세를 드러냈는데 이 감소 추이의 주원인은 30% 이상이나 된 학생 수 증가율이다. 이에 반해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멕시코, 칠레는 등록생 수가 각각 93%, 70%, 34%, 48%, 68%로 늘어났음에도 1학생당 지출이 크게 확장되었다. 고등교육 학생 수 증가율이 10% 이내 수준인 국가는 27개 OECD 국 및 이외 국가 중 단지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한했다.

부담은 누가? 정부가 여전히 비용을 부담하나 민간 출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초중등 및 고졸 후 고등 외 교육 비용 부담에서 공공 자금 비중은 OECD 평균 93%이며 호주, 독일, 한국, 멕시코, 스위스, 영국 및 OECD 외 국가인 칠레 경우, 민간 출자 비중이 13% 이상이다. 1995-2003년 사이 모든 교육 수준에서 공공 자금 비중이 늘어난 국가는 이 공공 비중이 줄어든 국가만큼 있었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에서 민간 출자 비중이 전체적으로 확장세를 이루면서 데이터를 보고한 국가의 절반이 3%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 호주, 이탈리아, 영국은 9%p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등교육 비용 가운데 민간 출자 비중은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터키의 5% 이내 수준에서 호주, 일본, 한국, 영국, 칠레의 50% 이상 수준 사이에 이른다. 대부분의 민간 출자가 가계 부담인데 이는 특히 등록비와 관련된다. 국가의 1/4 경우에 등록비 부담이 없고 기타 국에서는 등록비 격차가 크게 드러나는 실정이다.

교육 투자 : 경제와 개인이 보는 견실한 수익

교육은 주로 공공 지출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며 각종 연구 작업을 통해 이러한 지출이 잘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년 추가 교육이 OECD 경제 생산에 미치는 장기 효과는 보통 3-6% 사이로 추정된다. 경제성장의 원인 연구결과를 보면 1994-2004년 대부분의 OECD 국에서 1인당 GDP 성장률의 최소 1/2 정도는 노동 생산성 증진에 의했던 것이다. 생산성 증진이 반드시 교육에만 의한 것은 아니지만 인적 자본 측정 잣대로 문해를 활용한 연구 작업을 통해 문해 부문에서 국제 평균보다 1% 높은 점수 획득이 가능한 국가는 노동 생산성 및 1인당 GDP도 여타 국가보다 각각 2.5%, 1.5% 더 높은 수준을 이루게 됨을 알 수 있다.

개인 차원에서도 교육은 견실한 투자가 된다. 초등 및 대부분의 중등 교육이 의무임을 감안하면 '투자 결정'은 보통 중등 이후 교육 과정에의 입학 여부를 관련시킨다. '학위 인플레이'에 대한 확장적 보도와 자격증 가치 하락에도 대학 학위

취득을 위한 투자가 정규교육의 일부로써 개시될 경우 (미래 기대 소득과 개인 부담의 학업 비용을 대조, 계산하면) 연간 22.6%까지의 개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으며 현재 모든 국가가 8%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다. 교육의 간접적 혜택도 적잖이 있는데 실제로 높은 교육수준과 정신·육체 건강의 양호한 상태 간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국가적 차원의 분석 작업이 많이 있다.

하지만 교육이 성별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못하여 여성은 같은 학력의 남성에 비해 통상 50-80% 수준의 소득을 받게 된다.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른 결과

향후 10년 동안 칠레 및 30개 OECD 중 23개국 경우, 의무 학교교육의 학생 인구 규모가 줄어들 조짐이다. 이 추이는 5-14세 인구 감소율이 29%로 추정되는 한국에 특히 심하게 드러난다. 체코, 폴란드, 슬로박, 러시아 연방은 15-19세 인구가 30% 이상의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국은 이러한 감소 추이에 일찌감치 들어선 실정이다. 예로 스페인은 향후 10년 간 20-29세 인구가 34%의 감소율을 보게 될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육 참여율 및 1학생당 지출 비율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시 상기한 인구 추이는 칠레 및 4개국을 뺀 모든 OECD국에서 교육 지출 규모의 감소 현상을 초래하게 되어 결국 교육 참여율 및 1학생당 지출비의 증대 기회를 이들 국가에 더 많이 제공할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 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대체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잇따른 자금조달 압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 OECD 2006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본 개요의 복제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저작권 및 해당 출판물의 제목이
명시될 때에만 허가됩니다.

본 개요는 다음과 같은 영어 붙어 제목으로 출판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출판물 중에서 발췌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본 개요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oecd.org/bookshop/

자세한 정보는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rights@oecd.org

팩스: +33 (0)1 45 24 13 91

OECD Rights and Translation unit (PAC)
2 rue André-Pascal
75116 Paris
France

본 기구 웹사이트 www.oecd.org/right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